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과목 해설지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⑤	④	②	③	⑤	④	⑤	⑤	④	①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②	①	②	①	③	②	①	③	①	③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③	④	④	②	④	②	⑤	①	④	③

[해설]

1. [정답] ⑤

[해설]

제시된 그림의 제목을 유추해냄으로써 한자의 음과 뜻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그림은 뱃놀이를 하는 광경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뱃놀이’를 뜻을 가진 ‘船(배 선)’과 ‘遊(놀 유)’가 들어간 것이 정답이다. ① 문자도 ② 화조도 ③ 초중도 ④ 맹호도

2. [정답] ④

[해설]

한자의 짜임 중, 뜻 부분과 음 부분으로 결합된 형성자에서 뜻 부분의 결합에 따라 음 부분의 음과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4개의 한자는 모두 ‘蜀(나라 이름 축)’이 음 부분이고, 나머지 왼쪽은 모두 뜻 부분인데, ‘ㄴ’과 ‘ㄹ’은 음 부분의 음과 똑같고, ‘ㄱ’과 ‘ㄷ’은 음이 다른 경우이다.

ㄱ. 호텔 탁 ㄴ. 촛불 축 ㄷ. 홀로 독, ㄹ. 당을 축

3. [정답] ②

[해설]

일상생활에서 한자의 활용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그림은 은행에서 한 남성 고객이 여직원과 돈을 바꾸는 광경을 표현한 것이다. ‘돈을 바꾸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는 ‘換錢(환전)’인데, 그림에 ‘錢(돈 전)’자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은 ‘換

(바꾼 환)’이다.

- ① 돈 금 ③ 은 은 ④ 고리 환 ⑤ 돌아올 환

4. [정 답] ③

[해 설]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그림은 자전 찾기의 ‘부수색인’, ‘자음색인’, ‘총획색인’ 중 부수색인을 나타냈다. 답지 한자의 부수는 공통적으로 ‘水’이므로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획수가 6획인 한자를 찾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水(4획)’가 부수로 사용될 때 획줄임(ㄱ : 3 획)이나 획늘임(水 : 5획)이 되어 변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① 바다 해(7획) ② 샘 천(5획) ③ 물갈래 파(6획) ④ 클 태(5획) ⑤ 건널 섬(7획)

5.

- 견선여갈[착한 일을 보기를 마치 목마른 것같이 하라]
- 권선징악[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행실을 징계함]
- 개과천선[지난날의 잘못을 고치어 착하게 됨]

[정 답] ⑤

[해 설]

한자를 한자어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3개 한자어의 빈칸을 중심으로 전후 문맥을 유추하여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자를 찾으려면 ‘善(착할 선)’임을 알 수 있다.

6. [정 답] ④

[해 설]

두 개의 부수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이룰 때, 그 한자의 음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은 ‘持(가질 지)’이고, ㉡은 ‘俗(풍속 속)’이다.

7. [정 답] ⑤

[해 설]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한자어의 음과 뜻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답지에는 모두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를 제시하여 한자어의 음과 뜻을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단 주의’에서 ‘주의’는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다’ 또는 ‘어떤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이다’는 뜻을 가진 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注意’이다.

- ① 主意 : 주된 의미 ② 朱衣 : 붉은 옷 ③ 主義 : 굳게 지키는 주장이나 방침
⑤ 周衣 : 두루마기

8. [정 답] ⑤

[해 설]

일상생활에서 한자어의 활용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그림은 추위를 느낀 남녀 두 학생이 ‘난방(暖房 : 방을 따뜻하게 덥히는)’ 중인 장소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장면이다. ① 공사 :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 ② 휴업 :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 ③ 소독 : 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균을 죽이는 일 ⑤ 수리 : 고장 나거나 허름 한대를 손보아 고침

9. [정 답] ④

[해 설]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이루어진 십자말풀이를 통해 성어의 속뜻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세로 열쇠의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 흔든다’는 뜻을 가진 성어는 ‘驚天動地’이고, 가로 열쇠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이라는 뜻을 가진 성어는 ‘易地思之’이므로 ㉠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地’이다.

10.

- 부모 살아 계시면 멀리 나가지 말며, 나갈 경우는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
-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이 첫째 즐거움이다.

[정 답] ①

[해 설]

문장 독해에서 한자어 활용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후속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한자어가 ‘父母’임을 파악할 수 있다. 『논어』의 내용은 부모님 살아계시면 멀리 여행을 떠나지 말고, 또 집 밖을 나갈 때는 행선지를 알려드려야 한다는 뜻이고, 『맹자』의 내용은 군자의 삼락 중 부모·형제 등 가족의 안녕이 첫째라는 뜻이다.

11. [정 답] ②

[해 설]

일상생활에서 성어의 활용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그림은 달리기에서 꼴찌

를 한데 자극 받아, 달리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 실력이 날로 달로 발전하여 결국 1등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날로 달로 발전한다.’는 뜻을 가진 성어는 ‘日就月將’이다. 여기서 ‘將’은 ‘나아가다’는 뜻임.

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③ 외손백은 울릴 수 없다는 뜻으로, 상대 없이 싸울 수 없고,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 ④ 서로 서로 도움 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다는 뜻으로, 방법이 그르치면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

12. [정 답] ①

[해 설]

제시된 7개의 글자 카드 중 4자를 추출하여 성어를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성어의 속뜻을 찾아내는 문항이다. 제시된 일곱 개의 한자에서 사자성어를 찾으면 ①의 ‘螢雪之功(형설지공)’이 된다.

② 지록위마(指鹿爲馬)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④ 새옹지마(塞翁之馬) ⑤ 순망치한(唇亡齒寒)

13. [정 답] ②

[해 설]

‘성어의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 관련된 문항이다. 지문의 대화 내용을 볼 때, 형이 간사한 꾀로 어리숙한 동생을 속여 회롱하는 상황이 ②의 ‘조삼모사’의 내용을 패러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 ③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둘이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제 3자가 이익을 가로챈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이르는 말 ④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이르는 말 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

14.

-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心)을 바르게 한다.
- 남을 꾸짖는 마음(心)으로써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心)으로써 남을 용서하라.

[정 답] ①

[해 설]

격언의 문맥을 파악하여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찾아내는 문항이다. 문장을 풀이하여 빈칸을 중심으로 전후 문맥으로 보아 적절한 한자를 유추해 낸다.

15. [정 답] ③

[해 설]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격언·속담의 속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그림은 ‘개미와 베짚이’의 우화를 묘사한 것으로 ‘젊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③의 ‘봄에 만일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다.’와 상통한다.

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②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는 뜻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④ 마른자리는 아이를 눕히고, 젖은 자리는 어미가 잔다는 뜻으로 어머니의 지극한 자녀사랑을 일컫는 말. ⑤ 농부는 굶어 죽어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으면 재물이 소용없음을 모르는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을 비유하기도 하고, ‘눈앞의 어려움만을 생각해서 종자로 남겨둔 곡식조차 먹어 버리지 않고, 후손을 위하여 종자를 남기듯이 미래를 대비하는 훌륭한 정신을 찬양’하는 뜻으로도 쓰인다.

16~17

무릇 천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의 여관이요, 세월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런데 덧없는 인생은 꿈과 같으니, 기쁠 때가 얼마나 되겠는가? 옛사람들이 촛불을 밝혀 밤까지 놀았던 것은 물론 까닭이 있었도다.

16. [정 답] ②

[해 설]

산문을 독해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지문은 이백이 봄밤에 친족 형제들과 함께 봄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잔치를 벌이며 느끼는 회포를 서술한 문장으로, 덧없는 인생에 대하여 낭만적인 정조로 노래한 작품이다. 인생이란 한바탕의 꿈처럼 무상한 것이니 마음껏 즐겨보자고 권유한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기를 권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17. [정 답] ①

[해 설]

한자어의 짜임을 문장 독해와 관련지은 활용 문항이다. ㉠의 ‘천지’는 ‘하늘과 땅’으

로 풀이되는 병렬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식 관계이다.

- ㉠ 만물 :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 백대 : 오랜 세월 ㉢过客 : 지나가는 나그네
㉣ 부생 : 덧없는 인생

18~20

안동의 풍속에는 매년 정월 16일에, 김해는 4월 8일과 단오일(음력 5월 5일)에 장정들이 모두 모여 좌우로 편을 갈라 돌을 던지는 것으로써 승부를 결정했다. 비록 죽고 다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그것을 돌싸움이라고 말한다. 왜적을 칠 때에 (그들을)모집하여 선봉으로 삼으니, 적들이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

18. [정답] ③

[해설]

‘전통문화’에 관한 산문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민속놀이의 하나인 ‘석전(石戰)’ 즉 ‘돌싸움’은 주로 안동과 김해 지방에서 행해졌는데, 그 내용은 혈기가 왕성한 남자들이 모두 모여 두 편으로 갈라서 서로 돌을 던져 승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을 입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돌싸움을 통해 길러진 전투력과 상무(尙武)정신은 왜적의 침입을 막는데도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19. [정답] ①

[해설]

허자의 쓰임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의 ‘於’는 ‘~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거느리는 전치사로 쓰였는데, ㉡의 ‘于(우)’와 쓰임이 대체로 같다.

20. [정답] ③

[해설]

어구의 풀이 순서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어구인 ㉠의 ‘投石以決勝負’를 풀이하면, ‘돌[石]을 던져[投]서[以] 이기고[勝] 짐을[負] 결정짓다[決]’로 새기므로, ‘決’자가 맨 나중에 풀이됨을 알 수 있다.

21.

책상에 종을 올리는 시계가 있는데, 시간을 알람에 어긋남이 없다.

[정 답] ③

[해 설]

산문의 풀이를 그림과 연계하여 파악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지문은 종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자명종(自鳴鐘)’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이다.

22~23

(가) 날 저물어 외딴 주막에 드니
산이 깊어 사립문을 닫지 않았구나.
이른 새벽에 갈 길을 묻고 있노라니
단풍이 사람을 향해 날아드네.
(나) 강물이 파라니 새는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은 불타는 것 같구나.
울 봄도 보진대 또 지나가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갈 날은 그 언제이런가?

22. [정 답] ④

[해 설]

한시의 풀이에서 한자의 활용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의 ‘入’은 대표적인 뜻이 ‘들어가다’지만, 여기서의 문맥적 의미는 ‘(해가) 지다’는 뜻이고, ㉡의 ‘然’은 대표적인 뜻이 ‘그러하다’지만, 여기서의 문맥적 의미는 ‘불타다’ 즉 ‘燃(불탈 연)’의 뜻으로 쓰였다.

23. [정 답] ④

[해 설]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가)는 나그네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설움을 읊은 시로, 제 3구에서 ‘鷄鳴’은 ‘닭이 울 때’ 즉 ‘새벽’으로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였다. (나)는 강과 산의 아름다운 봄 경치를 보며, 속절없이 또 새 봄을 타향에서 보내야만 하는 나그네의 시름을 노래한 시로, 제 1,2구에서 색채의 대비로 시각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24~25

현명한 임금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마련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족히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며, 아래로는 족히 처자식을 기를 수 있게 하여, 풍년에는 일년 내내 배부르고, 흉년에는 굶어 죽음에서는 면하게 해야 하나니, 그런 뒤에야 백성들을 인도하여 선(善)에 가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기 쉬운 것입니다.

24. [정 답] ②

[해 설]

문장 독해에서 한자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한자인 ‘輕’의 본래 뜻은 ‘가볍다’지만, 여기서는 ‘쉽다’의 뜻으로 쓰였다.

25. [정 답] ④

[해 설]

산문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지문은 맹자(孟子)가 양혜왕(梁惠王)에게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설파한 글로, 통치자에게 ‘백성들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치’를 주문하고 있다. 즉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부모나 처자식 등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흉년에도 굶어 죽지는 않도록 일정한 생업을 마련 해주어야 왕도정치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27

(가) 임금의 행차는 서쪽으로 멀어지고,
왕자는 북쪽 땅에서 위태롭도다.
외로운 신하 나라를 걱정하는 날,
장사들은 공훈을 세울 때로다.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누나.
원수를 만약 모두 멸할 수 있다면,
비록 죽을지라도 사양하지 않으리.

(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인자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겁을 내지 않는다.”

26. [정 답] ②

[해설]

(개)는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입으로 위태로운 나라를 걱정하며, 나라를 구해내야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을 읊은 시이다. 특히 경련(제 5구와 제6구)은 이순신 장군의 큰칼에 구국의 맹세를 아로 새긴 글귀로도 유명하다. 이 시의 형식은 오언율시이며, 운자는 짝수 구의 끝자인 ‘危’, ‘時’, ‘知’, ‘辭’이다. 그리고 함련(제3구와 제4구), 경련(제5구와 6구)에서 대우를 이루었다.

27. [정답] ⑤

[해설]

한시의 시적 분위기를 명언구와 관련지어 감상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미련(제 7구, 제 8구) ‘讐夷如盡滅, 雖死不爲辭’에서 시적 화자의 죽음조차 불사한 구국의 결연한 의지와 비장한 각오를 미루어 볼 때, ‘勇者不懼(용감한 사람은 겁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과 연관 지을 수 있다.

28~30

이지함의 호는 토정이다. 아산 현감으로 제수되었을 때, 백성들을 모아 놓고 괴로움을 물으니, 고기를 키우는 못을 괴로움으로 여겼다. 대략의 내용은 그 고을에 물고기를 키우는 못이 있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고기를 잡아다가 그 못에 들이게 하니, 백성들이 그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다는 것이다. 지함이 이에 그 연못을 메워, 아예 후환을 없애버렸다. (또 다른 이야기는) 공이 떠도는 백성이 헤진 옷을 입고 밥을 빌어먹는 것을 불쌍히 여겨, 큰 집을 지어서 그들을 묵게 하였다.

28. [정답] ①

[해설]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의 ‘拜’가 기본적으로 ‘절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제수(除授)하다(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의 의미로 쓰였다.

29. [정답] ④

[해설]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疾苦’의 독음은 ‘질고(아플 질, 괴로울 고)’이다.

30. [정 답] ③

[해 설]

‘선인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산문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지문은 토정 이지함이 아산 고을 원이 되었을 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친 내용으로, 백성들의 고충을 물어 큰 부담으로 여기는 고기 키우는 못을 아예 메워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위해 큰 집을 지어서 머물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백성도 물고기를 잡도록 허락하였다’는 내용은 없다.